

安民歌考

李妍淑*

目 次

| | |
|------------------|----------------|
| I. 序 論 | 2. 安民歌의 雜密의 性格 |
| II. 本 論 | 3. 性格과 構造 |
| 1. 五岳三山神의 出現의 意味 | III. 結 論 |

I. 序 論

「三國遺事」卷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에 부대설화와 함께 실려있는 安民歌에 대한 연구논문은 신라시대의 다른 향가작품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작품의 생성배경을 경덕왕때의 정치·사회상과 결부시켜 사회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를 신봉하고 密敎에도 관심이 많았던 경덕왕이¹⁾ 五岳三山神의 出現이라는 不祥을 맞아 왜 密義등을 적극 배풀지 않고 禱答사를 맞아 노래를 짓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급은 없다.

이 작품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히 하여 다루어지지 않았던 종교사상적 측면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

* 東義大學校 日語日文學科 教授

1) 李妍淑, 新羅 鄉歌의 雜密의 性格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8.

서는 五岳三山神의 출현의 의미를 파악하고 난 뒤 경덕왕대의 정치·사회상과 종교사상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작품의 생성배경과 그 성격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本 論

安民歌의 창작과 관련된 실화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에 五嶽三山의 신들이 간혹 육신을 나타내어 대궐 뜰에서 왕을 모시었다. 3월 3일에 왕은 歸正門의 樓 위에 나가서 측근에게 말했다. “누가 도중에서 위의 있는 승려 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겠소?” 이때 마침 모습이 깨끗한 고승이 이리 저리 거닐면서 지나갔다. 측근 신하가 바라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띄었다. 왕은 말했다. “내가 말하는 위의 있는 스님이 아니다.” 왕은 그를 물리쳤다. 다시 승려 한 사람이 장삼을 입고 櫻筒을 걸머지고 남쪽에서 왔다. 왕은 기뻐하면서 그를 보더니 누 위로 맞아 들였다. 그 앵통 속을 보니茶具만 담겨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忠談입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저는 매양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 남산 三花嶺의 미륵세존께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또한 차 한 사발을 주겠소?” 중은 이에 차를 달여서 왕에게 드렸는데 차의 맛이 이상하고 그 사발안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기었다. 왕은 말했다. “내가 들으니 스님이 善婆郎을 찬미한 사뇌가가 그 뜻이 매우 높다 하니 과연 그러하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을 다스려 편안히 할 노래를 지어주오.” 중은 즉시 칙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은 그를 아홉다이어 여겨 王師로 봉하니 중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안민가는 이렇다. (後略)²⁾

이 실화의 내용을 보면 경덕왕이 나라를 다스린지 24년에 五岳三山神이

2)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於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 更有一僧 披衲衣 負櫻筒(一作荷簍)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師讀善婆郎詞讚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安民歌曰(後略)

간혹 殿庭에 육신을 나타내었으므로 왕은 위의 있는 중을 맞아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노래를 짓게 했는데 그것이 安民歌라고 하였다.

이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대표적인 것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金東旭: 「仁王經」과 「金光明經」에 들어 있는 「正法」思想和 아울러 新羅의 護國의인 思想을 생각한다면 이 「安民歌」의 辭意가 佛敎의인 것임을 理解할 것이다. 이를 反映하여 이 노래의 主體는 「王」으로 되어 있다. 君을 父母에 比하고 臣下를 乳保에 比하고 民을 赤子로 比한 것은 儒敎의 敎理이지만 君臣을 父母에 比한다는 論理的 飛躍을 統一하는 新羅에 있어서 儒佛習合의인 思想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³⁾

朴魯璋: 훨씬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派爭과 君臣民간의 질서과괴, 서민경제 생활의 심각성 등이 적체되어서 왕의 심기가 편치 않던 데다가 상서롭지 못한 山神들의 現身이 있게 되자 이에 왕은 安民의 大方을 얻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安民歌 출현의 近因이 되는 五岳三山神 등이 現신하자 왕은 일차적으로 殿庭에 모시고, 그 다음 가요의 마력을 빌어 이 不祥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 듯 하다.⁴⁾

尹榮玉: 이 作品은 橫으로는 上·下 人民의 對照로, 縱으로는 比喩의 發展이란 方法으로, 利他的·大乘의인 彌勒思想에 發想의 바탕을 두고 하나의 現實相을 그려내었다. 그것이 바로 全人民이 바라는 太平國이다. 그러나 이는 外延의인 意味에 지나지 않고, 安樂百姓하여 佛國土를 建設하는 것이 그 內包의인 意味이다.⁵⁾

金承燦: 이 노래에 나타나 있는 사상은 불교의 호국적인 王論法 思想和 유교의 爲民的인 王道思想이다. 따라서 이 노래에 나타난 사상을 어느 한쪽만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창작된 것이라 논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겠다.⁶⁾

이상의 여러 설들은 安民歌를 儒佛習合의인 思想의 노래, 彌勒思想에 바탕한 노래 등으로 논하고 있어 결론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모두 다 경덕왕때에 지어진 兜率歌의 창작동기나 작품의 성격, 그리고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의 설화의 전체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 작품의 성격은 사회학적 방법론 만으로는 올바르게 규명하기 어렵고 당시의 종교사상적 방법론을 병용해서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76, pp. 25~26.

4) 朴魯璋,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p. 247.

5)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80, p. 241.

6) 金承燦, 新羅鄉歌研究, 第一文化社, 1987, p. 72.

따라서 창작동기인 五岳三山神의 出現의 의미부터 살펴본 뒤 이 작품의 성격을 사회학적, 종교사상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급해 보고자 한다.

1. 五岳三山神의 出現의 意味

위의 설화에서 보면 五岳三山神이 나타난 것은 경덕왕 24년이라 하였다. 노래의 創作動機가 된 것이 五岳三山神의 出現이므로 이 五岳三山神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崔喆님은 이것을 凶兆로 尹榮玉님은 凶兆가 아닌 것으로 琴基昌님은 경덕왕이 行政面에서 文化面에 있어서 神通力을 發揮했던 人物이었음을 내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金承瓚님은 장차 있을 국난의 예고로 풀이하되 경덕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咎徵은 아니라고 보았다. 三山五岳神의 출현의 의미는 이들 신의 출현에 관한 여러 기록과 안민가가 실려있는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의 설화의 구조를 분석하여 일연이 이 설화를 실은 의도 속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五岳三山은 「三國史記」卷第三十二 雜志第一 祭祀條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祭祀-三山에 지냄

1. 奈歷-習比部 2. 骨火-切也火郡 3. 穴禮-大城郡

中祀-五岳에 지냄

동쪽-吐含山(대성군) 남쪽-地理山(善州)

서쪽-雞龍山(熊川州) 북쪽-太白山(奈巴郡)

중앙-父岳(일설에는 公山이라 함. 押督郡)

이로 보면 三山은 奈歷·骨火·穴禮이며 五岳은 吐含山·地理山·雞龍山·太白山·父岳임을 알 수 있는데 신라시대에 이 三山五岳에 언제 제사를 지냈는지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三山の 神의 出現에 관한 기록이나 五岳에 제사 지낸 기록이 보인다.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三山五岳神의 出現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의미가 분명해지리라 본다.

먼저 三山神에 대한 기록이다. 「三國遺事」卷第一 金庚信條에 보면,

나이 18세 되던 임신년에 검술을 닦아 國仙이 되었다. 이때 白石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으나, 몇 해 동안 화랑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 낭이 고구려, 백제 두 나라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이 모의하니 백석은 그 계획을 알고 낭에게 고했다. “제가 공과 함께 은밀히 저편을 먼저 정탐한 후에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낭은 기뻐하여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떠났다. 고개 위에서 막 쉬고 있는데, 두 여자가 나타나 낭을 따라왔다. 骨火川에 이르러 유숙하니 또 한 여자가 문득 이르렀다. 공이 세 낭자와 즐거이 이야기할 때 낭자들은 그에게 맛있는 과실을 주었다. 낭은 이를 받아 먹고 마음으로 서로 허락하여 이에 그 실정을 이야기했다. 낭자들은 말했다. “공의 말씀하는 바는 이미 들었습니다. 원컨대 공이 백석을 작별하고 우리와 함께 수풀 속에 들어가면 다시 실정을 말하겠습니다.” 이에 함께 들어갔다. 낭자들은 문득 신으로 변하여 말했다. “우리들은 奈歷·穴禮·骨火 등 세 곳의 護國神입니다. 지금 적국의 사람이 낭을 유인하는데도 낭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므로 우리는 낭을 팔리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자취를 감추었다.(中略) 공은 이에 백석을 죽이고 온갖 음식물을 갖추어서 三神에게 제사 지내니 모두 나타나서 재물을 흠향했다.⁷⁾

김유신이 적의 첩자에게 속고 있을 때 三山の 호국신이 낭자로 변하여 나타나 그를 위험에서 구해 주었던 것이다.

다음은 五岳과 관계있는 기록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 5년(138) 겨울 10월에 북으로 순행하여 친히 태백산에 제사지내었다.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一 逸聖尼師今條)
- 3년(300) 3월에 牛頭州에 이르러 太白山에 望祭를 지냈다.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二 基臨尼師今條)

天地·山神에 제사를 지내어 아들을 낳고, 가뭄에 비를 린 기록은 많이 보

7) 年至十八壬申 修德得術爲國仙 時有白石者 不知其所自來 屬於徒中有年 郎以伐麗濟之事 日夜深謀 白石知其謀 告於郎曰 僕請與公密先深於彼 然後圖之何如 郎喜 親率白石夜出行 方憩於峴上 有二女隨郎而行 至骨火川留宿 又有一女忽然而至 公與三郎子喜話之時 娘等以美菓餽之 郎受而啖之 心諾相許 乃說其情 娘等告云 公之所言 已聞命矣 願公謝白石 而共入林中 更陳情實 乃與俱入 娘等便現神形曰 我等奈林 穴禮 骨火等三所護國之神 今敵國之人 誘郎引之 郎不知而進途 我欲留郎而至此矣 言訖而隱(中略) 公乃刑白石 備百味祀三神 皆現身受奠

이지만 五岳에 제사지낸 기록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의 「三國遺事」金庾信條에서 보았듯이 三山五岳의 神들은 신라를 수호하는 호국신임을 알 수 있는데 그 神들이 간혹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三國遺事」·「三國史記」에서 호국신이나 개인을 호위하던 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는 대체로 국가와 그 인물에 위기가 닥쳐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예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왕이 또 鮑石亭에 행차했더니 남산의 신이 임금의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 좌우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나 왕만은 홀로 이것을 보았다. 사람이 앞에 나타나 춤을 추니 왕 자신이 춤을 추어 그 형상을 보이었다. 신의 이름을 혹 祥審이라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이 이 춤을 전하여 御舞祥審 또는 御舞山神이라고 한다.(中略) 왕이 또한 金剛嶺에 행차했을 때에 北岳의 神이 나타나서 춤을 추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玉刀鎗이라 했고 또 同禮殿의 잔치 때에는 地神이 나타나 춤을 추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地伯緞干이라 했다. 語法集에는 그때 산신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되 智理多都波都波라 한 것은 대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사태를 미리 알고 도망했으므로 도움이 장차 파괴된다는 것을 말함이다. 곧 지신과 산신은 나라가 장차 멸망할 것을 알았으므로 춤을 추어 그것을 경고했던 것이나 나라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祥瑞가 나타났다고 하여 술과 색을 즐기며 더욱 심해졌던 까닭에 나라는 마침내 멸망했다.

(「三國遺事」卷第二 處容郎 望海寺條)

○ 여름 6월에 사람들이 보니 군복을 입고, 병기를 가진 사람 수십명이 유신의 집에서 울면서 나오더니 조금 후에 보이지 않았다. 유신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이는 반드시 神兵이 나를 호위하던 자인데 내가 복이 다한 것을 보고 가버린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 후 10여일 만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中略) 가을 7월 1일 자택의 정침에서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79살이었다.

(「三國史記」列傳第三 金庾信條)

위 기록에서 보면 현강왕때 나타난 南山과 北岳의 神, 地神은 앞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또 김유신 집에서 울며 나간 수십명의 사람들은 神兵인데 김유신의 죽음에 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김유신에게 나타난 三山の 神이나 현강왕때 나타난 神이나, 김유신의 죽음에 임해서 나타난 神은 모두 護國神·개인의 守護神인데 그 신들이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는 국가나 개인의 위기, 멸망, 죽음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덕왕 24년에 간혹 殿庭에 나타났다고 하는 三山五岳神도 어떤 不祥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不祥은 신라중대 무열왕계의 중언을 말하는 것임을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의 安民歌 다음에 계속되는 설화로 확인할 수 있다.

설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덕왕이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비(三毛夫人)를 폐하여 沙梁夫人으로 봉하고 依忠각간의 딸 滿月夫人을 후비로 맞이하였다. 왕이 하루는 表訓大德에게 上帝에게 청하여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하니 表訓이 天帝에게 다녀와서 말하기를 딸은 가능하지만 아들은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딸을 아들로 바꾸어 주기를 청하게 하니 表訓이 다시 다녀와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들이 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 하였다. 경덕왕은 비록 나라가 위태하더라도 아들을 나아 뒤를 잇게 하면 만족하겠다고 하였다. 그후 태자가 나서 8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나이가 어려 태후가 政事를 보살피니 나라가 어지럽고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나라에 큰 난리가 생겨 왕은 마침내 宣德王과 金良相에게 죽음을 당했으며 表訓 이후로는 신라에 성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설화가 忠談師의 鄉歌作品 뒤에 계속되고 있으므로 결국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는

1. 景德王 24년에 三山五岳神이 출현함
2. 景德王이 忠談師를 맞이하여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편안하게 할 노래를 짓게 함
3. 景德王이 그 이전에 表訓大德을 불러 上帝에게 청하여 아들 낳게 해 주기를 명령했는데 나라가 위태롭더라도 딸을 아들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였으므로 태자를 낳았지만 나중에 즉위 후 나라가 어지럽고 왕은 金良相에게 죽음을 당하였음

의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 구성을 보면 三山五岳神의 출현은 그 이전 景德王과 表訓이 上帝의 命을 어기고 아들 낳기를 바라자 上帝가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예시했던 것이 더욱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화의 뒷부분에서 혜공왕이 죽고 金良相이 즉위했다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신라중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삼국유사」의 찬자도 三山五岳神의 출현이 新羅中代의 끝남을 예시한 것이라고 파악했기에 설화 뒷부분을 혜공왕이, 新羅下代 첫 왕이 되는 金良相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써 마무리 했다고 보아진다.

2. 安民歌의 雜密的 性格

경덕왕때 재앙이 되는 일이 자주 나타나므로 경덕왕 15년에는 上大等 金思仁이 상소를 하여 時政의 시비를 극력으로 논한 적도 있으므로 경덕왕 말년에 나타난 三山五岳神의 출현이 不祥을 의미한다는 것을 경덕왕도 깨달았던 듯하다. 그리하여 그 위기를 타개하는 방책으로 충담사에게 노래를 짓게한 것이라 보아진다.

그런데 「三國史記」·「三國遺事」에 나타난, 天變地異때 왕들이 취하는 방법을 보면,

- 첫째, 신하들을 모아 정치, 형벌의 잘잘못을 물음.
- 둘째, 죄수를 사면함.
- 셋째, 종묘에 빌어 기도함.
- 넷째, 山川神에 제사 지냄.
- 다섯째, 正殿을 피하고 음식의 양을 줄임.
- 여섯째, 무당을 시켜서 빌게 함.
- 일곱째, 기도하고 사람들이 증됨을 허락함.
- 여덟째, 백고좌회를設함.

등이다. 경덕왕은 이들 중 어느 방법도 취하지 않고 충담사를 조용히 맞아 노래를 짓게 했다. 이것은 경덕왕 19년에 두 해가 나란히 나타났을 때 월명사가 散花功德을 베풀면서 兜率歌를 불러 괴변을 물리친, 노래의 雜密的 효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다. 그리하였기에 충담사를 맞아서 강론을 하게 하지 않고⁸⁾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노래에도 적극적인 발원이 보임직한데 노래의 가사문면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유교적 왕도사상을 표출시키면서 이면에는 밀교경전인 「金光明經」 등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 三山五岳神의 출현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리고 있음은 경덕왕 후기의 정치·종교사상사와 관련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신라중대가 전제왕권 시대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는데 삼국통일 후에

8) 경덕왕 22년에 대내마 李純이 머리 쥐고 중이 되어 斷俗寺를 세우고 살았는데 왕이 유행한 음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대궐에 가서 간하니, 왕이 감탄하여 음악을 정지하고 불도의 妙理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책까지 듣고 며칠만에 그쳤다고 하였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九)

이루어진 대표적인 왕권강화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문왕 9년(689) 봄 정월에 内外官의 祿邑을 없애고 해마다 벼를 차등있게 주었다. (「三國史記」新羅本紀 第八)

신문왕 9년에 당의 율령제도를 도입하여 균전제를 모방한 관료전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土地소유를 억제함으로써 귀족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경덕왕때는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漢化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덕왕 6년(747) 봄 정월에는 中侍를 고쳐 侍中이라 하였고, 18년(759)에는 중앙官府 명칭을 漢式으로 고치고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왕권강화책을 쓴 경덕왕의 16년(757) 3월에는 관료전을 없애고 다시 祿邑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덕왕 15년(756) 봄 2월에 상대등 金思仁이 근년에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들이 자주 나타났으므로 임금에게 글을 올려 시정의 잘되고 잘못된 점을 극력으로 논했는데 왕은 이를 옳게 여겨 기꺼이 받아 들었다.⁹⁾

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경덕왕때에 天變地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는데 16년 3월 녹읍을 부활시킨 때까지 太子가 없었으므로 귀족세력에 밀려 녹읍을 부활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18년에 다시 중앙官府 명칭을 漢式으로 고쳐 왕권강화책을 쓰게 된 것은 경덕왕 17년 가을 7월 23일에 왕자가 탄생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 사료된다.¹⁰⁾ 그러나 이때는 이미 반왕당파의 세력이 커져 있었음을 경덕왕 19년 4월에 金巖이 侍中이 되었다는 데서 살펴볼 수 있다. 金巖은 경덕왕의 첫 왕비이며 無子를 이유로 경덕왕 2년에 出宮당한 三毛夫人과는 남매지간이라 추정되고 있는데¹¹⁾ 金巖은 三毛夫人의 出宮으로 반왕당파 세력이 되고 경덕왕 13년에 皇龍寺鍾을 만들 때 三

9) 十五年 春三月 上對等 金思仁 以比年 災異屢見 上疏極論時政得失 王嘉納之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九)

10) 十七月…秋七月 二十三日 王子生.

11) 金壽泰, 統一新羅朝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巖, 「歷史學報」 99·100號, 歷史學會, 1983, p. 135.

毛夫人이 다량의 銅을 施主함으로써 세력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하여¹²⁾ 19년에는 侍中이 됨으로써 그 세력을 회복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王은 또 다시 7월에 王子 乾運을 왕태자로 세움¹³⁾으로써 왕권강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라 중대의 이같은 왕권강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은 신인종과 화엄종이라 하겠는데 신인종은 明朗의 文豆婁祕法에 의한 雜密思想이 外兵調伏이라는 호국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경덕왕도 전체 왕권에 주력했던 만큼 밀교도 신봉했는데 그것은 唐 代宗황제에게 萬佛山 만다라를 만들어 보낸 것이나,¹⁴⁾ 12년에 가물자 瑜伽宗의 대현을 불러 金光經을 강하여 단비를 빌게 한 것이나¹⁵⁾ 19년에 두해가 나타났을 때 밀교식의 산화공덕을 베풀고 四天王寺의 月明師에게 노래를 짓게 한 것¹⁶⁾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四天王寺를 증시하였다는 것이다. 신라 중대에는 寺院에 成典을 설치하여 전 불교계를 통괄하게 하였는데 신라 중대의 成典寺院과 관직명의 변화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成典寺院의 명칭변화

| 경덕왕 18년 이전 | 경덕왕 18년~혜공왕 11년 | 혜공왕 12년 이후 |
|------------|-----------------|---------------|
| 四天王寺成典 | 監四天王寺府 | 復故 |
| 奉聖寺成典 | 修營奉聖寺使院 | 復故 |
| 感恩寺成典 | 修營感恩寺使院 | 復故 |
| 奉德寺成典 | 修營奉德寺使院 | 復故 |
| (奉德寺成典설치전) | 修營眞智大王寺使院 | 復故 |
| 靈廟寺成典 | 修營靈廟寺使院 | 復故 |
| 永興寺成典 | 監永興寺館 | (復故) |

12) 金壽泰, 위의 논문, p. 145.

13) 十九年…四月侍中廉栢退 伊淦金崑爲侍中 秋七月封王子乾運爲王子

14) 三國遺事 卷第三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

15) 三國遺事 卷第四 賢瑜伽 海華嚴條

16) 三國遺事 卷第五 月明師 兜率歌條

成典寺院의 官職名의 변화

17)

| 관직명 성전명 | 衿荷臣 | 上堂 | 赤位 | 靑位 | 史 |
|------------|-----|----|----|----|---|
| 四天王寺成典 | 監令 | 脚 | 監 | 主簿 | 史 |
| 奉聖寺成典 | 檢校使 | 副使 | 判官 | 錄事 | 典 |
| 感恩寺成典 | 檢校使 | 副使 | 判官 | 錄事 | 典 |
| 奉德寺成典 | 檢校使 | 副使 | 判官 | 錄事 | 典 |
| 奉恩寺成典 | 檢校使 | 副使 | | 錄事 | 史 |
| 靈廟寺成典 | | | 判官 | 錄事 | 史 |
| 永興寺成典 | | | 監 | | 史 |

이 표는 「삼국사기」 卷第三十八 雜誌 第七 職位와 官等부분을 도표화한 것인데 이같은 관직명의 변화는 봉덕사 성전, 영묘사 성전, 영흥사 성전의 경우 경덕왕 18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른 절의 경우도 경덕왕 18년에 고쳐진 것이라 보아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四天王寺成典에 監令, 脚, 監, 主簿와 같은 관부·관직의 명칭상 최고 높은 지위가 주었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경덕왕이 雜密系의 四天王寺成典에 최고의 직위를 부여했음은 16년의 祿邑 부활로 왕권이 약화되고 있던 때에 이듬해 왕자가 태어나자 이를 계기로 다시 중대 왕실의 사상적 지주인 四天王寺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귀족세력을 억압하려고 했던 듯하다. 경덕왕이 四天王寺의 雜密의 기능을 중시하였던 까닭에 19년에 두 해가 나타났을 때에는 四天王寺에 거주하는 月明師로 하여금 兜率歌를 짓게 하였던 것이라 보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三山五岳神이 출현하자 조심스런 태도로 忠談을 맞이하여서는 구체적인 발원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백성을 다스리는 노래를 짓게 한 것은 19년(760)에 侍中이 된 金嶽을 중심으로 한 귀족세력에 의해 왕실이 신인종의 四天王寺에 부여한 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었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경덕왕때 주조되기 시작하여 혜공왕 7년에 완성된 聖德大王神鍾의 銘文에

17) 蔡尙植, 新羅統一期の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第8輯, 釜山史學會, 1984. 1, p. 102.

檢校使兵部令兼殿中令司馭府令修城府令監四天王寺府令并檢校眞智大王寺使上
 相大角干臣金崑
 檢校使肅政臺令并修城府令檢校感恩寺使角干臣金良相¹⁸⁾

라 하였음에서 알 수 있듯이 반왕당과 金崑은 監四天王寺府令을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金崑이 이 관직을 갖게 된 시기는 侍中 자리를 물러난 경덕왕 22년(763)으로 추정되고 있는데¹⁹⁾ 이로 보면 경덕왕 19년에 金崑이 侍中이 된 이후 경덕왕의 왕권은 극히 약화되어 정치, 종교사상적 측면에서 모두 반왕당파의 제재를 받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리하여 혜공왕 12년에는 모든 관직의 칭호가 원래대로 회복되어 중대 전제왕권은 끝나고 신라 하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같이 金崑이 侍中이 되고 또 시중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監四天王寺府令이 되어 왕권이 극히 약화되고 있던 때에 간혹 殿庭에 그 모습을 드러낸 三山五岳神은 경덕왕에게 극히 不祥한 징조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반왕당파 세력이 등장하여 경덕왕이 증시한 四天王寺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만큼 不祥을 알리는 三山五岳神의 출현에 대한 사실을 드러낼 수 없어 3월 3일에 귀정문의 樓에 나가서 측근에게 위의 있는 승려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측근 신하가 모습이 깨끗한 고승을 데리고 오자 “내가 말하는 위의 스님이 아니다.” 하고 물리쳤다. 다시 장삼을 입고 앵통을 걸머지고 남쪽에서 오는 승려가 있었는데 왕은 기뻐하면서 그를 보더니 누각 위로 맞아 들였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승려에게 누구인지, 어디서 오는지를 묻고, 충담이라고 하자 讚耆婆郎詞腦歌에 대해 물은 뒤 백성을 다스려 편안히 할 노래를 지으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경덕왕은 三山五岳神의 출현이 가끔 있자 처음부터 이를 노래의 힘으로 不祥을 막아 보고자 했던 듯하다.

경덕왕이 충담에게 한 물음들로 보아 왕은 충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으며 3월 3일과 9월 9일에 三花嶺의 미륵세존에게 차공양을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던게 아닌가 한다. 그래서 3월 3일 귀정문의 누위에 올라가 충담이 차공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 사료된다. 경덕왕이

18) 金壽泰, 앞의 논문, p. 128 재인용.

19) 李昊榮, 聖德大王神鐘銘의 解釋에 관한 몇가지 문제, 『考古美術』 125집, 1975, p. 12.

측근 신하가 처음에 데리고 온 위의 있는 승려를 자신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여 물리친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또 讚善婆郎詞腦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담사가 향가를 잘 짓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로 보면 경덕왕은 月明師가 미륵사상으로 二日並現의 異現象을 퇴치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三花嶺의 미륵세존을 공양하는 忠談師가 미륵사상을 바탕으로 한 雜密歌를 지어 그 힘으로 국가가 안정되고 왕권이 유지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라 생각한다.

경덕왕은 화엄종과 법상종을 통해 중앙집권적 진제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서 法相宗은 미륵보살을 숭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眞表傳簡條를 보면 法相宗의 開祖인 眞表가 靈山寺에서 수행하여 미륵보살로부터 占察經 2권과 證果簡子 189개를 받아 金山寺에서 法施를 베푸니 경덕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궁안으로 맞아 들여 보살계를 받고 租 7만 7천 석을 내렸으며 왕후와 외척들도 모두 戒品을 받고 명주 500단과 황금 50냥을 布施하였다²⁰⁾고 되어 있다.

미륵보살을 숭앙하면서 戒律을 크게 강조하는 法相宗을 경덕왕이 이처럼 신봉하였음을 왕권을 강화하면서 戒律적인 통치질서를 확립하려는 왕의 의도와 부합하였기²¹⁾ 때문이겠다. 그리하였기에 경덕왕 19년에 두 해의 출현이라는 天文의 異現象으로 암시된 災變이 더욱 임박해 왔음을 알리는 同王 24년의 三山五岳神의 출현에 즈음하여 그 不祥을 없애기 위해 미륵보살의 加持力을 빌고자 했던 듯 하다. 두 해가 나타났을 때 月明師가 兜率歌를 지어 부르면서 미륵보살을 請한 것과 마찬가지로 三山五岳神이 나타났을 때도 미륵보살을 이 땅에 모셔와서 君臣간의 대립갈등이나 그로 인해 백성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清涼한 佛國土가 신라사회에 실현되기를 바랐던 것이라 보아진다. 그리하여 三花嶺의 미륵세존을 지극 정성으로 공양하고 또 향가도 잘 짓는 충담으로 하여금 노래를 짓게 하였던 것이겠다.

그런데, 경덕왕이 三山五岳神의 출현이 내보이는 不祥을 密義를 베풀고 적극적인 眞言의 性格의 노래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에서 논한 것처럼

20) 景德王聞之 迎入宮闈 受菩薩戒 囑租七萬七千石 椒庭列岳皆受戒品 施絹五百端 黃金五十兩 皆容受之 分施諸山 廣興佛事

21) 金承燾, 앞의 책, p. 14.

반왕당파의 세력이 강화되어, 경덕왕이 신봉하고 강화했던 四天王寺 세력이 약화되고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경덕왕이 충담사를 맞아 노래를 부르게 한 이면에는 신라시대에 鎮護國家的 性格을 지닌 보살로 수용된 미륵세존의 加持力에 힘입어 眞言의 성격의 노래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고 추찰된다.

이러한 사실과, 신라향가의 경우 부대설화와의 관련성을 무시하고는 작품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울러 생각할 때 노래내용 자체에는 적극적인 발원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앞의 정치적 사정을 고려하고, 또 이 작품이 미륵불을 신봉하는 忠談師에 의해 지어졌는데 미륵불이 신라시대에 현세 이익적인 雜密的 性格을 지녔음을 생각하면 이 작품은 미륵사상을 바탕으로 한 眞言의 性格의 노래를 의도하여 지어진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性格과 構造

安民歌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작품의 원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爲狂尸恨阿孩古
 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朕生以支所音物生
 此朕喚惡支治良羅
 此地朕捨遣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國惡支持以 支知古如
 後句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爲國惡太平恨音叱如

君은 아버지
 臣은 다수실 어씨어
 民은 어리 아 고
 하실디 民이 다살 알고다.
 구릿 하늘 살이기 바라말씨
 이를 치악 다 릴러라.

君은 아미요
 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실진댄 民이 사랑을 알리라.
 大衆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 | |
|--------------------------------|---------------------|
| 이 따할 바리곡 어드리 가늘더 |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
| 할디 나락 다니기 알고다 | 할진댄 나라 保全할 것을 알리라. |
| 아야 쥘다 臣다히 民다 | 아야,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 |
| 하늘단 나락 太平한 하난따. ²²⁾ | 한다면 나라가 太平을 持續하느니라. |

이 작품도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단락은 1行에서 4行까지인데 여기서는 君王은 한 가정으로 말하면 父와 같고 臣下는 母와 같으며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정사를 돕는 신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관계를 父母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였다. 王이 백성의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佛敎經典과 儒敎經典에 많이 보이고 있지만²³⁾ 臣下를 母라고 한 것은 忠談師의 독특한 발상이라고 하겠다. 경덕왕이 백성을 다스려 편안하게 하는 노래를 지으라 하였는데 충담사가 왕이 행해야 할 正法만을 논하지 않고 臣下의 도리도 아울러 말하고 있음은 경덕왕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한다. 臣下가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왕에게 대항하는 반왕당과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지적하여 나라는 왕의 힘만으로는 잘 다스려지기 힘들고 신하들도 각자의 직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했다 하겠다.

둘째 단락은 5行에서 8行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왕과 신하가 治者로서 해야 할 도리는 백성을 편안하게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단락은 9·10行인데, 여기에서는 다시한번 첫째 단락의 의미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君王은 君王답게 臣下는 臣下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각자의 직분과 도리를 다한다면 나라는 太平할 것이라고 하였다.

尹榮玉님은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起-承-轉換-結의 4단락으로 나누었다.

22) 金完鎮,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pp. 71~72.

23) 金承瓌님의 「新羅鄉歌研究」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 | | | |
|---------------------|--------|---------------|------|--|
| (1) | (2) | (3) | (4) | (恒常 安樂된 福 누리다) |
| ①君：父(慈恩) 臣：母(悲恩) | 嗛理(父母) | 知國持(君臣) | =如君臣 | ↳國太平(彌勒下生)=佛國土 (恭敬해 도우며 現世 安樂 所願成就) ²⁴⁾ |
| ②民：子(孝養) (報恩) | 知愛(子) | 捨此地 行何處(民) | 如民 | |

위 표는 작품을 해체하여 기·승·전·결의 구조에 짜맞춘 것인데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작품의 성격은 드러나리라 본다.

작품에 미륵보살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으나 내용의 이면에는 君-臣-民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에 비유하고 각자가 자신의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여 戒律을 중시하는 미륵사상을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표방하였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사회가 실현될 때 곧 신라사회가 지향한 佛國土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리라는 염원도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 작품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인 만큼 君-臣-民과 父-母-子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君은 君답게 臣은 臣답게 民은 民답게’는 유교의 王道思想이면서 불교의 諸經典에도 널리 보여 雜密의 性格은 전연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충당사가 臣下를 母에 비유하여 경덕왕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노래를 지었으면서도 가사문면에는 전연 그런 색채를 내보이지 않고 있음은 이 작품도 찬기파랑사뇌가와 마찬가지로 ‘그 뜻이 높은’ 작품이라 하겠다. 경덕왕도 그런 작품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노래를 짓게 한 경덕왕의 의도와 노래를 지은 충당사의 의도는 부합했다고 보아지지만 차원 높은 비유법으로 완곡히 표현한 뛰어난 작품이라 하겠다. 이로 보면 이 작품도 미륵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노래에 의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한 雜密思想이 그 창작배후에는 담겨 있었다고 보아진다.

24) 尹榮玉, 앞의 책, p. 240.

III. 結 論

이상에서 安民歌를 사회학적 방법론·종교사상사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살펴 보았는데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덕왕 24년에 나타났다고 하는 三山五岳神의 출현은 현강왕때의 神들의 출현이나 김유신때의 호국신들의 출현, 神兵의 출현들이 각각 나라의 멸망·위기·개인의 죽음을 예시한 것이었고 또 안민가가 들어있는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의 구성이 三山五岳神의 출현, 忠談師의 노래 지음, 景德王이 上帝에게 딸을 아들로 바꾸어 주기를 청한 까닭에 나라가 어지럽고 혜공왕이 죽음을 당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중대의 끝남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둘째, 경덕왕 19년에 두 해가 나타났을 때는 산화공덕을 베풀고 四天王寺의 月明師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 퇴치하게 했던 경덕왕이 이때는 아무런 의식 없이 忠談師를 불러 조심스럽게 노래를 짓게 했음은 그 당시 이미 반왕당파의 세력에 의해 정치·종교 양면에 있어 왕권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었던 때문이라 하겠다.

셋째, 그러나 설화 내용으로 보아 경덕왕은 충담사가 三花嶺의 미륵불을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향가도 잘 짓는다는 것을 알고 그를 기다렸던 듯한데 이로 보면 경덕왕의 의도는 미륵보살의 加持力을 바탕으로 한 眞言의 性格의 노래를 짓게 하려 하였던 것 같다. 충담사도 이를 깨달았으나 가사문면에 직접적인 발원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비유법으로써 君臣의 道理를 노래한 것은 위와 같은 정치·사회적 배경 때문이라 하겠으나, 이 점은 오히려 이 작품을 문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